

취업교육 1위 해커스

한경비즈니스 선정 2020 한국품질만족도 교육(온·오프라인 취업) 부문 1위 해커스

해커스공기업 지역농협 6급 합격족보



수리 1타

김소원



지역농협 6급
취업을 위한 TIP이 한 번에!

- 지역농협 6급 합격가이드
- 지역농협 6급 관련 농업 이슈
- 지역농협 6급 필기 기출 족보

해커스공기업/공기업 2021년 수리 단과 강의 매출 비교

해커스공기업

목차

1. 지역농협 6급 합격가이드

농협 알아보기	3
지역농협 채용 알아보기	5

2. 지역농협 6급 필기시험 기출 족보

최신 지역농협 6급 필기시험 NCS 기출 키워드	7
응시생이 알려주는 시험장 Tip	8
합격생이 알려주는 필기시험 준비 Tip	9

3. 지역농협 관련 이슈

기후변화 대응	10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	11
쌀 수급 안정	12
고향사랑기부제	13
축산농가 경영 안정	14
청년농 육성	15
축산 약취 개선 사업	16

농협 알아보기



하는 일	교육지원 부문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동반자 관계로 함께 성장·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경제 부문	농업인이 영농활동에 안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가공·소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경제사업 부문은 크게 농업경제 부문과 축산경제 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농축산물 판로확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금융 부문	농협의 금융사업은 농협 본연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과 수익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농업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사업은 시중 은행의 업무 외에도 NH카드, NH보험, 외국환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경제에서 농업경제, 국가경제까지 책임을 다해 지켜나가고 있음
기관명	농업협동조합	
유형	협동조합	
설립일	1961년 8월 15일	
본사주소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16(중앙회 본사)	

1. 경영가치체계

- 비전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 슬로건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
- 핵심가치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

• 혁신전략

- 농업인·국민과 함께 「농사같이(農四價値)운동」 전개
-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과 지원체계 고도화로 「농축협 중심」의 농협 구현
- 디지털 기반 「생산·유통 혁신」으로 미래 농산업 선도, 농업소득 향상
-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을 통해 농축협 성장 지원
- 「미래 경영」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농협으로 도약

2. 인재상

시너지 창출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계통 간, 구성원 간에 상호존경과 협력을 다하여 조직 전체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너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인재
행복의 파트너	프로다운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고 최상의 행복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재
최고의 전문가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자아를 성장시키고, 유통·금융 등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인재
정직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	매사에 혁신적인 자세로 모든 업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처리하여 농업인과 고객,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인재
진취적 도전가	미래지향적 도전의식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3. CI



- 『V』끝은 『농』자의 『L』을 변형한 것으로 싹과 벼를 의미하여 농협의 무한한 발전을, 『V』끝을 제외한 아랫부분은 『업』자의 『o』을 변형한 것으로 원만과 돈을 의미하며 협동 단결을 상징함
- 마크 전체는 『협』자의 『ㅎ』을 변형한 것으로 『L+ㅎ』은 농협을 나타내고 항아리에 쌀이 가득 담겨 있는 형상을 표시하여 농가 경제의 융성한 발전을 상징함

4. 농협 조직 구성



* 2025.1.1. 기준

지역농협 채용 알아보기

*2025년 상반기 채용 기준이며,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 사이트(<https://with.nonghyup.com>)를 확인하세요.

1. 응시자격 및 채용절차

<p>응시자격</p>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학점, 어학점수: 제한 없음 • 연령: 제한 없음 • 병역: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2025.10.31까지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 채용공고일 전일(2025.9.23) 기준 본인·부·모 중 1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가능 주소지 내에 있는 자 <p>[일반관리직] 별도 자격 없음</p> <p>[일반관리직(영농지도)] 농과계 졸업자 및 2026년 2월 농과계 졸업예정자 (단, 영농지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축산·수산·산림·식품가공·농업경제(유사학과 포함) 등 관련 졸업(예정)자는 제외)</p> <p>[일반관리직(농약판매)] 농약 판매관리인으로 등록 후 경력 7년 이상이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 '농약판매관리인'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상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중전의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p> <p>[전문직]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p>
<p>우대사항</p>	<p>[일반관리직] 유통관리사 1급, 물류관리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단, 일반관리직(영농지도), 일반관리직(농약판매), 전문직 지원 시 우대하지 않음</p>
<p>기타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합격 후 수습기간에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직될 수 있음 • 부정합 채용청탁이 확인된 경우 채용전형 중 해당 단계 합격이 취소되거나, 입사 전 최종 합격 취소, 입사 후 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농협 인사 관련 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또는 면직 처리
<p>채용절차</p>	<p>서류접수, 자기소개서 심사 → 필기시험(인·적성 및 직무능력평가) →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 최종 합격</p>

2. 채용 단계별 세부 내용

<p>지원서 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홈페이지 또는 잡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 인편, 우편, E-mail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지원서 접수 ※ 최종마감일 18:00 이후에는 접수중이라도 입력 중단(지원 불가) • 입사 지원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합격 취소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오류입력에 따른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p>필기시험 (인·적성 및 직무능력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성 검사+직무능력평가로 진행됨 • 직무능력평가는 지역별로 60문항 또는 70문항이 출제됨 - 직업기초능력평가 출제 범위(2025년 상반기 기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p>면접시험 및 신체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시험은 인성 면접과 주장 면접(토론)으로 진행됨 - 1차 면접(인성 면접): 기본 인성, 지원 동기, 시사 상식 등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평가함 - 2차 면접(주장 면접): 농협, 경제/경영 상식, 시사 상식 등 제시된 특정 주제에 대한 지원자의 답변 내용을 평가함 • 면접 시 농·축협 입사지원 관련 서류 제출 • 정해진 기간 내 건강검진(재검진 포함) 미수검시 불합격 처리

최신 지역농협 6급 필기시험 NCS 기출 키워드

* 2025년 상반기 시험 기준

1. 의사소통능력

어휘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어 찾기 • 연상 단어 찾기 • 접속사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반의어 찾기 • 사자성어 • 속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 관계 찾기 • 빈칸 완성 • 한자어
문서작성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띄어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법 	
독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내용 찾기

2. 수리능력

기초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속력/시간 • 연산기호 • 소금물 농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률/경우의 수 • 도형 둘레 • 방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계산 • 환율 • 일률
수/문자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파벳 배열 	
도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계산 • 민간투자 사업방식 관련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율 • OECD 관련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율/행복지수 관련 소재

3.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제추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추리
문제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차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대해석의 오류

4. 자원관리능력

자원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예산 		
자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수립과정 • 직간접비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실 선정 • 예산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관리 순서

5. 조직이해능력

조직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슬로건 • 전담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업이 하는 일 • 윤리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운영 제도
비즈니스 매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의 날 • 타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물 • 세시풍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 종류

응시생이 알려주는 시험장 Tip

* 2025년 상반기 시험 기준

1. 시험장 정보

문항 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무능력평가(N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문항/60분: 서울 - 60문항/70분: 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경북/제주/울산 - 70문항/70분: 경남 인적성검사(인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문항/30분 또는 200문항/30분 또는 210문항/25분 ※ 인적성검사 문항 수 및 제한 시간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시험 구성	NCS(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인적성검사 → NCS는 영역 구분 없이 하나의 시험지로 실시됩니다. → 인적성검사는 온라인 인적성검사와 달리 Y/N를 답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가장 가깝다~가장 멀다 사이의 정도를 표시)
시험 당일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

2. 시험 응시 중 참고사항

- ① 오답 감점이 없습니다.
 - 모르는 문제나 시간이 부족해 풀지 못한 문제는 찍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시험 종료 전 몇 차례 남은 시간을 방송으로 안내합니다.
 - 전자시계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사장 내 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시험 초반 안내 방송 외에도 시험 중간에 종료 시각 알림이 있으므로 안내되는 시간에 맞추어 자신이 적절한 속도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만, 안내 방송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반드시 지참하여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감독관이 수정테이프를 빌려줄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④ 전반적으로 시험지 가독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 시험지의 가독성이 낮으면 문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풀이 시간도 평소보다 조금 더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실제 시험보다 짧은 시간을 제한 시간으로 두고 문제를 풀거나, 소음이 있는 곳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격생이 알려주는 필기시험 준비 Tip

* 2025년 상반기 시험 기준

1. 필기시험 준비

- ① 지역농협 6급 시험 유형은 60문항/60분 시험과 60문항/70분 시험, 70문항/70분 시험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역별로 출제되는 시험 유형이 다르며, 지역별 시험 유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응시할 지역의 최근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해당 시험 유형에 맞춰 연습을 하되, 시험 유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른 시험 유형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응시할 지역의 시험 유형에 따라 시간 안내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유형의 시험에 영역별 제한 시간이 없으나, 유형별로 출제 문항 수와 제한 시간이 다르므로 자신 있는 영역과 취약한 영역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가능하면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틀린 문제는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2. 영역별 준비

- ① 지역농협 6급 시험에서는 '모듈형'으로 불리는 워크북 기반 암기 문제와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기초능력 워크북 이론을 확실히 숙지하고,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상식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②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에서는 PSAT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득점을 달성하고 싶다면 민간경력자 PSAT 수준의 문제를 풀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③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장문의 글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일 신문을 읽거나 수능 국어영역 비문학 문제집을 풀며 속독 능력과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자성어, 한자어 등 어휘력을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되므로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④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빠른 문제 풀이법 등을 학습하여 문제 풀이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⑤ 조직이해능력에서는 실제로 농협과 관련 있는 사업 및 내용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기업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대응

1. Check Point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원예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3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재배관리 지원 서비스와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이 소개되었으며, aT는 기후적응형 신상품 수매 지원 및 장기저장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보도자료

농식품부·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산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진청(청장 권재한, 이하 농진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홍문표, 이하 aT)는 6월 18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의 현장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기후변화 대응 현장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하였다.

* 정부부처(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통계청·농진청), 유관기관(농협·aT·농어촌공사·KREI), 생산자·소비자·유통단체, 민간 전문가들로 포럼 풀(pool)을 구성하여 주제에 따라 참여자 선정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개최된 제2차 포럼(정부 비축 역량 강화 방안 모색)에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 개발·보급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 작황 불안정 등으로 인해 원예농산물의 수급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과 신속한 보급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생산자단체의 수요에 기반한 재배기술의 개발과 기술 실증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참여 확대, 농식품부 수급 관리 정책과 연계한 기술 보급 확대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20~27) 등을 통해 내재해 품종개발·보급 확대, 재배지 변동·작황 예측, 안정 재배기술 개발 및 이상기상에 대한 피해경감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농가·대학·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수요자·현장 맞춤형 신기술 보급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작물 재배관리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와 작물 맞춤형 기상재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등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사례도 함께 소개되었다.

* 기후정보를 바탕으로 작물별 재배일정 자동 생성, 위험요소 알림 기능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농장단위 농사 계획을 수립·공유·관리하여 생산성 향상을 지원

** 인터넷(<https://agmet.kr>), 모바일 웹(<https://mobile.agmet.kr>)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44개 작목을 대상으로 전국 확대 시행 예정(현 110개 시·군, 42작목 운영)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문인철 수급이사는 “aT는 농진청 개발 기후적응형 신상품 수매 지원 및 장기저장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원예농산물의 재배 및 수확 후 관리기술의 현장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원예농산물의 생산·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재배 기술 개발·보급 및 수급 정책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5-06-19 보도자료)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

1. Check Point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농촌의 빈집을 주거, 문화, 창업 공간 등으로 재생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민간과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2025년 강진, 청도, 남해 3곳을 선정해 지구당 3년간 21억 원을 지원하며, 각 지역은 특색에 맞는 활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관련 보도자료

빈집의 새로운 변신으로 농촌생활인구유입 추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3개 지구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이하 농촌빈집재생지원) 사업지구로 전남 강진군, 경북 청도군, 경남 남해군 3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촌빈집재생지원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아이디어와 지역의 특색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에 사람을 이끌도록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으로 구성한다.

사업지구 선정 시 △참여기관의 사업 유사 실적 등 전문성과 시설 운영 관련 지역 환원 계획, △특색 있는 아이디어 등 계획의 차별성, △빈집 정비 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지 및 입지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지구에는 3년간 지구당 총 21억 원*(국비 6.3억 원)을 지원한다.

* 국비 30%, 지방비 5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20%

선정된 지구들은 민간과 협업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시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하고,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하였다. 남해군은 워케이션 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시설 관리 플랫폼과 마을·빈집활동가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농촌빈집재생사업 추진에 기량을 발휘하여 방치되었던 빈집이 정비를 넘어서 농촌에 생활인구를 끌어들이고 지역에 활기를 돌아주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5-04-01 보도자료)

쌀 수급 안정

1. Check Point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쌀 수급 안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3만 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협은 농기계 구입비 예산을 보조하여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을 지원하고, 가루쌀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 관련 보도자료

2023년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 농업인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 쌀 적정생산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다짐 결의대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쌀 적정생산 대책'의 농가 참여 확대 등을 위해 2월 13일(월) 세종시 소재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대강당)에서 「2023년도 쌀 적정생산 대책」 업무협약 체결 및 성공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협약 체결에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쌀전업농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쌀생산자협회·국산콩생산자협회·한우협회·낙농육우협회·조사료협회 등 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3만 7천ha 감축을 목표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및 관련기관 단체 간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 지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는 타작물 재배기술 지원 및 홍보와 고품질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협경제지주는 콩·조사료 등 타작물의 계약재배, 판로 확보, 수급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쌀생산자협회, 국산콩생산자협회는 회원 농가의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하여 자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조사료협회는 하계 조사료 7천ha 재배 달성을 목표로 국내산 하계 조사료 소비촉진을 통한 판로 확보 및 종자 확보·공급 등 경축순환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 이후 쌀 적정생산 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 등 참석자 전원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 안정을 달성, ▲논 활용체계를 다양화하여 농가소득 제고와 식량자급률 향상 도모, ▲쌀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로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김정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업무협약식 및 결의대회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쌀 적정생산 대책의 추진성도가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으로 직결되는 만큼, 쌀생산자단체 및 축산단체 등 유관기관 단체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종자 공급, 기술지원, 판로 확보 등 농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3-02-13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제

1. Check Point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을 지자체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도농 간 재정 격차 해소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답례품을 발굴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 관련 보도자료

‘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로 법적 근거 마련-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다.

* 검색 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으로 검색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 ◇ 개인(법인 불가) /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 (기부한도)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금액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 ◇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16.5% 공제
- ◇ (위반행위) 기부 강요, 모금 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림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행정안전부(2023-01-03 보도자료)

축산농가 경영 안정

1. Check Point

농협은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자 사료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등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보도자료

배합사료 가격 추가 인하로 농가경영 안정 지원 - (주)농협사료, 한 포대(25kg)당 625원 추가 인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안정세 등에 따라 배합사료 업계에서 가격을 잇달아 인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주)농협사료(대표 김경수, 농·축협 사료 합산시 '22년 점유율 31%)가 작년 12월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 내린 데 이어, 지난주 2월 10일(금)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한 포대(25kg 기준)당 625원(25원/kg) 추가 인하함으로써 농·축협 사료 구매 비중이 높은 한우농가의 62.1%(‘22년 시장점유율 기준)가 매월 73억 원*의 사료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22년 비육우사료 생산량 5,657천톤 중 농·축협 비중 3,683천톤

또한 다른 사료업체들도 사료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이번 농·축협 사료가격 추가 인하의 영향 등으로 다음 주부터 전 축종 kg당 20원 정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 사료곡물 가격은 작년 7월 고점(도입월 기준)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옥수수과 대두박의 가격 하락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사료용 옥수수는 작년 7월에 톤당 404\$에서 올해 1월 도입가격은 톤당 336\$로 약 16.8% 인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미환율 평균이 작년 10월 고점 이후 올해 1월 12% 하락하면서 사료 가격 인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주)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환율 등 변동성이 커 쉽게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숯값 하락 등으로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고객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이 먼저”라며, “축산물 생산비 저감을 위해 사료업체가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들의 동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 사료업계 영업실적 점검과 사료업계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농협사료 뿐만 아니라 사료협회 회원사들의 사료가격 인하를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축산단체도 사료업계에 사료가격 인하 촉구 공문을 발송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사료 가격의 추가 인하요인이 있는 경우 조기에 가격에 반영되도록 사료업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사료업체와 축산농가의 동반성장을 위해 민간 사료회사들의 사료가격 인하 동참을 재차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사료 및 원료구매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농식품 부산물 등을 활용한 자가 배합사료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3-02-16 보도자료)

청년농 육성

1. Check Point

정부는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유관기관인 농협 등과 함께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신규 농업 인력의 유입 확대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청년농부사관학교 운영, 스마트팜 보급, 애그테크 창업교육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관련 보도자료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선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5년간 총 2만 6천 명으로 추산)와 5년 후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약 8천 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구성) 정부(농식품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청년농 등

또한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의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 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원스톱)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2-10-05 보도자료)

축산 약취 개선 사업

1. Check Point

정부는 농촌 지역의 환경 개선과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축산 약취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은 이전부터 분뇨 약취 감소 효과가 있는 사료첨가기술 개발, 방취림 조성, 농장 주변 벽화 그리기 등 친환경 축산 구현과 축산농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관련 보도자료

지역단위 축산약취개선 활동 결실 맺어 - 전국 33개 지역에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농가-주민 간 규약을 정해 실행하는 등 불신 해소로 약취민원 전년 대비 55% 감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약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약취개선 활동 우수 성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 한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혁신도시 등 축산약취로 인해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약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약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농가·시설별로 수립한 약취개선계획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약취 발생을 사전 차단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지자체, 축산농가, 지역주민,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약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환경관리원, 대한한돈협회, 농협, 학계, 축산환경 상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 및 현장지원을 통해 분뇨처리 개선, 약취저감시설 설치, 경축순환 활성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약취 저감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였다.

올해 축산약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갈등해소 및 인식개선으로 약취민원 감소, 약취개선 붐 확산

○ 약취민원 다량 발생 지역 민원 55% 감소 ('21) 3,070 → ('22) 1,694건

- 김해시 등 일부 시군 '20년 대비 80% 감소 ('20) 5,157 → ('22) 1,012

○ 약취개선 지역협의체를 지역 조례화(완주), 33개 외 지역에서 자발적 협의체 운영 등 개선 붐 확산

2. 정화처리 확대 및 경축순환 활성화를 통한 약취 개선

○ 3만m³/년 규모(발생량 34%) 정화처리 확대 통해 분뇨적체로 인한 약취문제 해결(예천 등)

○ 고품질 퇴비 생산 노력 확대 통해 부숙도 검사 시 부숙 후기·완료 비율 90% 이상 달성(1,356호)

- 경종·축산농가 협의체 통한 연계로 고품질 퇴비 이용 확대, 화학비료 76% 저감성과(상주시)

3.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실시간 약취 점검

○ 실시간 점검 통해 약취 다량 발생 농가·시설 도출 ('22.7, 10개소)

○ 대상별 약취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집중 관리

('22.7.22~10.28, 지자체, 산하기관, 상담사 협조)

⇒ 약취관리 대상 암모니아 96.2% 저감 효과 ('22.5.) 15.96ppm → ('22.10.) 0.61(△96.2%)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2-12-15 보도자료)

농협은행+지역농협 한 번에 대비! 농협 취업 올인원패스



의사소통
최수지

수리
김소원

금융권 전문가
심연은

농협 최종합격을 위한 합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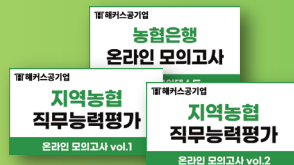
기초부터 확실히
금융권 취업 직무가이드



농협은행·지역농협
인강 무제한 수강



농협은행·지역농협
온라인 모의고사(최대) 7종



필기기술, 농업이슈까지
합격족보 제공



*비매품/PDF

